

# ‘보랏빛 물결 출렁’...퍼플섬 라벤더 축제 오세요

### 19일부터 열흘 간 신안 박지도 전국 최대 규모 3만5천㎡ 정원 버스킹·부케 제작 체험 등 다채 ‘올 봄 찾아가고 싶은 섬’ 선정

신안군이 보라색 꽃이 흐드러진 퍼플섬에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연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색으로 이야기 하는 국내 유일한 퍼플섬 박지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3만5,000㎡ 프렌치 라벤더 정원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농·특산물판매, 맛있는 브랜드제품 홍보, 버스킹 공연, 라벤더 머리화환 및 부케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이 선보일 예정이다. 퍼플섬은 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곳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에서 공동으로 ‘2023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국의 여행자들이 신안군의 퍼플섬 관련 여행 상품을 앞 다퉈 내 놓으면서 ‘관광 수도’로 떠올랐다. 주요 검색사이트에 온라인 상품이 60여개가 등록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퍼플섬의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퍼플섬, 반월·박지도 찾아가는 방문객과 관광객은 28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38만명이 다녀가는 등 1년 사이 10만명이 증가했다. 매일 1,000여명이 다녀간 셈이다. 고작 200여명 남짓 거주하는 작은 섬이 들썩거렸다.

퍼플섬의 기적은 신안군이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한몫했다. 박우량 군수는 보라색 의복을 착용한 이들에게 무료입장 허용을 지시했다. 여행 가기 전 설렘을 안고 도착해 보랏빛으로 물든 세상에서 맘껏 동화되도록 배려한 이유다. 지난해부터 무료입장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보라색 옷을 입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한 동반객과 두 명 이상의 관광객이 양말, 스카프, 안경 등 동일한 보라색의 악세사리를 갖춘 사람에게 무료입장을 허용했다. 주민등록상 보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무료다.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가발을 착용해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확대 이전에는 보라색 의복 착용 시와 상·하의, 신발, 우산, 모자만 해당됐었다. 퍼플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신안군의 발 빠른 대처도 높이 살만하다. 우회도로를 개설해 만족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반월, 박지도는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근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보라색 섬으로 컨셉을 정했다. 농업과 맨손어업에 의지했던 마을 주민들이 사계절 울긋불긋 꽃이 피고 지는 ‘꽃동산’으로 만들기 위해, 나 없이 팔을 걷어부쳤다. 반월도에 설치된 이색 공중전화기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등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린 왕자가 운영하는 전화 하우스다. ‘문브릿지’로 향하는 대표소 입구 주변에 메타버스 전용 체험관인 ‘퍼플박스’를 구축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중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퍼플고 중간, 중간에 ‘I PURPLE YOU, 이곳에서 말해줘, 추억의 자리, Shian 보라해’ 등이 쓰여진 벤치도 포토존으로 인기를 끈다.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폭발적이다. 지난 2020.8~2022.12월까지 7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퍼플섬 입장료 수입은 18억원에 이르고 50개의 지역 일자리도 창출했다. 신안군은 퍼플섬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라색 꽃과 나무 가꾸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군은 퍼플섬에서 계절의 여왕 5월 라벤더꽃 축제를 시작으로 6월 벚꽃마련초 꽃축제, 9월 아스타 꽃축제 등을 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라벤더정원에서 보라색 꽃과 향기를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경찰서는 최근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류 범죄 총력대응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목포경찰서와 목포세관, 국립목포검역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청, 해군제3함대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마약 이슈와 관련해 지역 청소년 마약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으나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며, 향후 학교 내 마약류 범죄 발생 시 처리절차와 예방을 위한 학생들 상대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은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마약 성분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 출국되는 경우 상선 추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관계기관 간 신속한 처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경찰서장은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어 그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에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약범죄 합동단속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



신안군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박지도 퍼플섬에서 라벤더 축제를 연다.

/신안=이주열 기자

## 목포경찰, 마약범죄 대응 간담회

목포경찰서는 최근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류 범죄 총력대응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목포경찰서와 목포세관, 국립목포검역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청, 해군제3함대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마약 이슈와 관련해 지역 청소년 마약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으나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며, 향후 학교 내 마약류 범죄 발생 시 처리절차와 예방을 위한 학생들 상대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은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마약 성분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 출국되는 경우 상선 추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관계기관 간 신속한 처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경찰서장은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어 그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에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약범죄 합동단속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

## “고향사랑기부 참여하면 ‘해남사랑군민증’ 발급”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출향인들의 고향방문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해남사랑군민증’을 발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해남사랑군민증은 실제 해남에 살지는 않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해남사랑’을 실천한 국민들에게 ‘명예 해남군민’으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발급 대상은 고향사랑기부자와 해남사랑위더스(with us) 회원, 출향군민 등이다. 해남사랑군민증을 제시하면 해남군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시설의 경우 고산유적지, 공룡박물관, 흑석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와 땅끝오토캠핑장·땅끝황토나라테마촌 이용료 30% 감면, 흑석산자연휴양림 비수기 50%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향방문과 여행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점, 숙박(호텔, 리조트, 휴양림, 펜션)·관광·체험·레저시설 등 민간 할인가맹점에서도 해남사랑군민증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 ‘전국 생산량 70%’ 금일 다시마 우수성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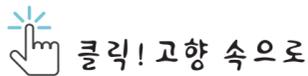
### 완도 다시마 축제 성료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다시마의 고향’ 완도군 금일읍에서 ‘해, 바람, 바다 그리고 다시마’라는 주제로 제14회 금일읍 다시마 축제가 열렸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다. 축제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신의준, 이철 도의원, 완도군의회 허궁희의

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과 최재성 재경금일읍향우회장, 천한욱 재경금일읍향우회장, 주민, 향우 등이 참석했다. 축제는 금일읍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다시마 효능을 알리는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읍민의 상을 시상했다. 이어 다시마 슬라이딩 등 체험 프로그램과 다시마, 전복 등 시식, 마을별 단체 줄넘기, 노래자랑, 축하 공연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다시마 슬라이딩’은 참가자가 마을 이름 크게 외치며 다시마 위에 몸을 던져 손끝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겨루는 게임으로 이색적이어서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한편,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등의 효능이 있으며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완도 다시마는 청화 작용과 영양 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된 해역에서 자라

과 영양이 우수하며, 다시마 등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양 의학 학술지인 ‘마린 드러스’에도 게재된 바 있다. 오는 24일 금일읍에서는 다시마의 풍년을 기원하는 초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그동안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5월 초 단비가 내리면서 제한 급수가 해제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다시마의 가치를 널리 알려 금일 명품 다시마의 명성을 이어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다시마 수확철 어민들의 일손을 덜어드리고 다시마 소비 촉진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강진 소아암 이웃돕기회, 모금액 전달

강진군소아암이웃돕기회는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버스킹 모금액 100만 원을 강진군에 전달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소아암이웃돕기회는 8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김영수와 통기타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매주 주말 가우도에서 통기타 버스킹 공연을 하는 통기타 동호회 단체이기도 하다. 김영수 회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보람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아름다운 노래 가우도를 더 멋진 관광지로 만들어주고 나아가 꾸준한 기부로 큰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재경 진도지산면향우회, 고향기부 동참

진도군 지산면 재경향우들이 고향 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산면 재경향우들은 최근 지산초등학교에서 4년 만에 열린 지산면민 한마당잔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거주

하면서 조금이나마 진도군에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아 장현준 회장(지산중학교 총동문회)을 비롯 박운철, 박운규, 임상수씨가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허민영, 한병희, 임현숙, 김창준, 강순자씨가 각각 100만원의 기부에 동참해 총 2,500만원을 기부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 무안사회복지협, 심리정서지원 교육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보성세계자연유산 행사장 일대에서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한 춘계 심리정서지원교육 ‘오랏! 차차차’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리정서지원 교육은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맞춤형서비스를 현장에서 직

접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와 전담 사회복지사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및 직원들 간의 업무 정보 교류를 위한 치유교육 프로그램으로 녹차밭 치유 도보 여행과 녹차 족욕 체험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나민희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받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